

## 주일의말씀

### 우리의 본고향은 어디인가?



이창영 바오로 신부  
매일신문사 사장

여러분, '고향의 봄'이란 노래 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노래는 오래 전부터 고향을 그리워 하면서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향 생각이 납니다. 눈앞에 고향의 풍경이 아른거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고향!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곳, 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고향인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경축하는 대축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본고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태어난 곳, 우리의 본고향은 어디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고향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타향 살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고향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

고향인 하늘은 우리의 손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그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고향인 하느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이시며 하느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제자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새로운 만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의 보증이요 확신이며, 끊임없는 새로운 만남의 연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기뻐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본고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쳐서 땅만 내려다보고 살지 말고 가끔씩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저 하늘이 바로 우리의 본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 교구시노드 제1차 전체회의

“새 시대, 새 복음화”

◆ 일시: 2011년 6월 12일(일) 14:00 ◆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강당





## “디지털 시대의 진리, 선포, 참된 삶”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45차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일고 있는 깊은 변화가 문화적 사회적 대변혁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매체들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성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대화, 교류, 연대, 긍정적 관계의 창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지닌 몇 가지 전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소통의 일방성, 자기 내면세계의 일부만을 전달하려는 경향, 자칫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자기 허상을 만들어낼 위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장에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공간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만나게 해 주고, 그렇게 하여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상 세계의 만남이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직접적인 만남

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새로운 상황 안에서 새로운 표현 형태를 통하여, 자기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하도록 다시 한 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1베도 3,15 참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의 진리는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충분한 지식과 책임감을 지닌 창조력으로, 디지털 시대가 가능하게 해준 관계망에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관계와 친교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참된 응답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 젊은이 여러분이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세계 청년 대회에서 만날 것을 젊은이 여러분에게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하느님께서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언제나 양심적으로 전문가다운 의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수호성인이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기도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 마음가짐도 새롭게

박성규 엘리지오





## 오늘의 미사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입당 성가

141 죽음을 이긴

### 화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  
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  
이 오르신다.

###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 봉헌 성가

221 받아주소서

### 영성체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파견 성가

137 부활하신 주 예수

## 영성의 향기

### ::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우리가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용서와 화해**입  
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하  
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이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반드시 해  
야 하는 한가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에 나오듯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용서받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우리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  
다. 미운 사람이 있고 화가 날 때 먼저 하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  
고, 주님께 도와 주십시오 청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우  
리에게 이 용서를 얻어주시려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을 하느님께 먼저 말씀드릴 때, 하  
느님께서 우리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미움, 상처, 불안과 같은  
감정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손  
수 지으셨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인생살이를 경험하  
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 짧은 글 - 깊은 생각

### 세기의 정복자들



역사상 이름난 정복자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한 사람은 몽골 제국을 세운 칭  
기즈 칸입니다. 2등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3등은 티무르 제국을 건설한 티무르 황제입니  
다. 그리고 4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가장 넓은 영토인  
인류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대와 총칼로 정복하지 않으셨고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왕 중의 왕이라 부르며,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십  
자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6.8(수) 14:00, 가톨릭 교육원

폐제기도회

일시: 6.11(토) 20:00, 삼덕젊은이성당

제99차 선택 주말

일시: 6.10(금) 19:30 ~ 12(일) 18:00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문의: 안병희 마태오 (010)5295-9156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http://cafe.daum.net/daeguchoice

JOC 50주년 기념 미사

일시: 6.19(일) 10: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대강당

주례: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성소 / 피정

대구 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상담

일시: 8:00~17:00 언제나 가능(대상: 젊은이)

문의: 622-4408(carmeldg@hanmail.net)

매월 첫토요일 기도 17:00 초대합니다.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일시: 7.20~23(수~토) 27~30(수~토)

8.1~4(월~목), 6~9(토~화), 12~15(금~일)

문의: 성이시들 피정센터, (02)773-1455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교육 / 모집

시편성가연구(김정선수녀, 발성법(박재연) 화비1만원

일시: 6.5(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조이플 스테이(15~17차) 초대

일시: 6.11~12 / 18~19 / 25~26 (토~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

대상: 미혼여성 (미사 준비, 회비 없음)

문의: (010)2649-2045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일시: 6.11(토) 10:00~12:30, 마감: 6.7(화)

장소: 남산동신학대학강당(참가비: 5천원, 점심포함)

주제: 성경, 그림으로 읽다(송창현 미카엘 신부)

문의: 평신도 신학교육원, 660-5105~6

제17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기간: 7.17(일)~8.27(토), 6주(4백5만원)

대상: 초4~중3(선착순 40명)

문의: 656-6655(ARSA)

제10회 성인 해외봉사 · 어학연수 모집중

문의: 593-1273

로고스 말씀가족(성인반) 여름연수

제3차 창세기 연수

일시: 7.23(토)~24(일), 베네딕도영성관(시수동)

제4차 탈출기 연수(창세기 연수 수료자)

일시: 8.27(토)~28(일), 연화리피정의집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38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 · 중 · 고: 7.23(토)~8.15(일)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 · 일반: 6.26(일)~8.7(일)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 콜롬반회)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실천교리교육 창시자 Kett 초청연수

일시: 1차 8.2(화)~4(목) / 2차 8.8(일)~10(수)

장소: 안양 성라자로마을 아론의집

문의: 노들담수녀회 실천교리교육연구소

(02)763-2274 / (010)8829-6292

생활성가밴드 아도나이 회원모집

모집부문: 건반, 보컬(여자, 남자)

문의: 조용석 아나스타시오, (010)4509-7016

http://club.cyworld.com/adonaiband

스페인어 강좌 개설

대상: 성인(초급, 중급반)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문의: 253-1313

직원 채용

소화성당 남자사무직원 채용

구비서류: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추천서

접수: 소화성당신협(6월17일 오전 12:00까지)

문의: 622-4542

가톨릭문화관 아간경비 아르바이트 모집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보호병동 증축 개원

여러 중독이나 정신적 질병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병동

운영: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문의: (031)639-3731~4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영순(마리아글라렛), 문동환

| 미 사                    | 일 시             | 장 소    | 미 사             | 일 시               | 장 소      |
|------------------------|-----------------|--------|-----------------|-------------------|----------|
|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 6월 6일(월) 오전 11시 | 계산주교좌당 | 꾸르실리스파 월례미사     | 6월 6일(월) 오후 7시30분 | 꾸르실로 교육관 |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6월 6일(월) 오전 11시 | 성동성당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6월 6일(월) 오후 10시   | 한티순례자집   |
|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6월 6일(월) 오전 11시 | 인평성당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 6월 9일(목) 오후 2시    | 성모당      |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 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흥식(리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맥박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맑은 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역박사/전문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ji.com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 난치성 아토피  
· 연어발달장애, 지체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한의원 박사 김 성 철 (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592-1275, 593-1275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야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신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장 영 일(그리산도)신부

수맥 흙(돌)침대

대표전화: 1588-5335

21주년 공장직판

수맥지도 임 응 승 신부님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